

■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을 길'

파란 가을이 다녔던 길에는 알록달록 가을이 물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강추! 우리 고장 가을 길'이라는 테마 아래 10월의 가을만한 곳으로 '바다와 가을의 추억을 나누다, 변산 마실길', '가을 풍경 속으로 빠지다, 팔공산 올레길', '영동과 영서를 잇는 민초들의 옛 고갯길, 구룡령 길', '산과 강의 합작품 상주 낙동강길' 등을 선정했다. 길을 거닐면 가을이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풍경에 취해 걸음은 느릿 마음은 느긋

◇바다와 가을의 추억을 나누다, 변산 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을 가진 부안군은 수려한 자연을 따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곳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두 발로 변산반도를 기억할 수 있는 변산 마실길이다. 총길이 66km인 변산 마실길은 4구간 8코스로 나뉜다.

1구간은 새만금전시관에서 격포항, 2구간은 격포항에서 모항곶별채시험장, 3구간은 모항곶별채시험장에서 곰소염전, 4구간은 곰소염전에서 줄포자연생태공원까지 이어진다.

길은 국립공원지역답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바다를 따라 방치된 옛길을 되찾고, 숲에서 간벌된 나무를 가져와 뚝배기를 만들고 길을 보수했다.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덕에 변산 마실길은 걷기여행자들이 손꼽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곰소염전, 부안청자박물관, 금구원조각공원, 석정문화관 등 다양한 볼거리도 부안여행의 즐거움이다.

문의: 부안군청 환경복지과 063-580-4382.

◇가을 풍경 속으로 빠지다, 팔공산 올레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다.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옛길과 오솔길, 농로, 마을길 등 걷기 종합 세트가 있는 대구 팔공산 올레길을 걸어보자. 팔공산 올레길은 총 8개 코스로 왕복 5km(1시간 30분 내외)에서 11km(3시간 30분 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2코스 '한살길 가는 길'이 좋다.

신승겸 장군이 태조 왕건으로 가장해 견훤과 싸운 공산 전투의 현장이다. 역사에 대해 미리 공부해 가면 금상첨화.

가을날 팔공산 올레길은 유난히 붉다. 밧걸레 익어가는 사과 때문이다. 어느 길을 걸어도 제철 맛은 달콤한 사과 향기가 사방에서 코끝을 간지럽힌다. 길은 도중 손수 재배한 농작물을 펼쳐놓고 파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올레길 걸기의 소박한 즐거움이다.

문의: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053-803-3881

◇산과 강의 합작품, 상주 낙동강길

낙동강 천삼백리 물길에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는 곳이 상주 경천대다. 깎아지른 절벽과 그 밑을 흐르는 강이 만들어내는 절경이 가히 하늘이 만들었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곳이 바로 상주의 'MRF 이야기 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1코스인 낙동강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경천대를 배경으로 숲이 우거지고, 강변에는 낙동강의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사별면의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경천대에서 자전거박물관, '상도' 촬영세트장, 청통사를 거쳐 오르는 비봉산 전망대 코스는 낙동강의 유장한 물결을 벗 삼아 트레킹 하듯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비봉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S자 모양의 낙동강의 모습은 이색적이다.

들녘을 휘돌아부드럽게 내려오는 낙동강과 경천대 절벽에 부딪혀 다시 물길을 돌려 거칠게 휘어 나가는 낙동강의 서로 다른 풍경을 보게 된다.

문의: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108

◇영동과 영서를 잇는 민초들의 옛 고갯길, 구룡령 길

양양은 여행의 3박자를 갖춘 고장이다. 깊은 숲길과 계곡, 바다, 맛과 체험이 어우러진다.

구룡령 길은 한가롭고 고즈넉해 가을이면 운치를 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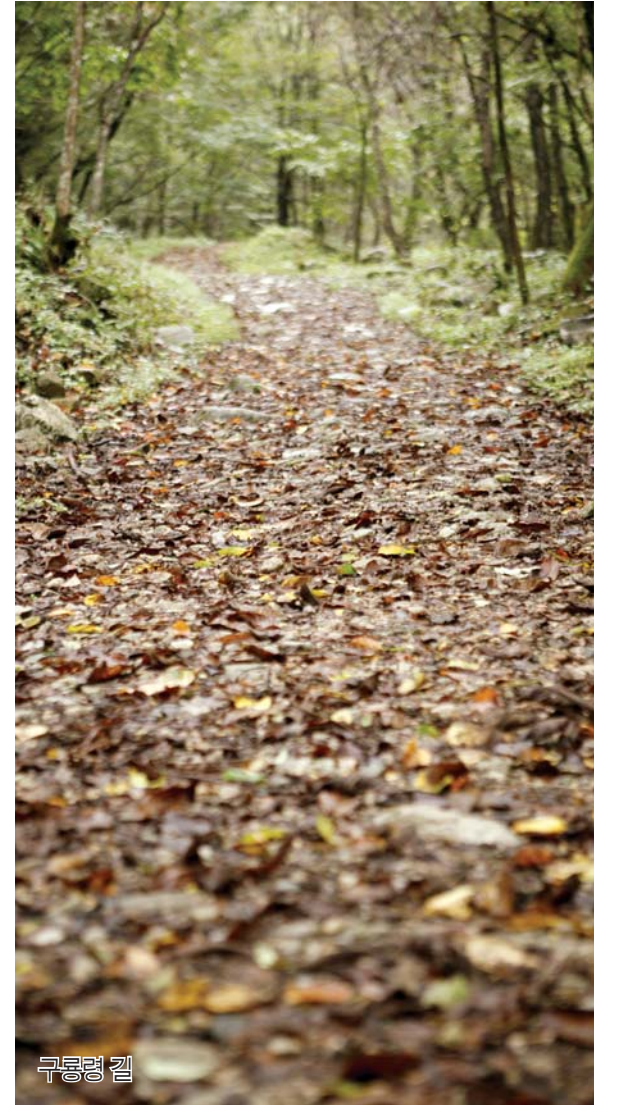
다. 최근에는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주로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구룡령이 영동, 영서를 잇는 주요 통로였다.

구룡령 옛길에는 민초들의 지난한 삶이 담겨 있다. 구룡령 옛길은 문화재청이 명승 제29호로 지정한 문화재길이기도 하다. 울창한 소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진 숲길은 백두대간과 연결된다. 56번 국도를 따라 구룡령으로 향하는 길목은 송천 뚝마을, 미천골 자연휴양림 등이 들어서 있다.

남대천 상류인 법수치에서는 양양의 깊은 계곡을, 남해항과 하조대에서는 양양의 푸른 바다와도 만날 수 있다. 양양의 가을은 축제도 풍성하다. 10월 22~23일, 29~30일에는 남대천 일대에서 연어축제와 연어맨즈잡이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229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00%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게임동·홈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 까지 **30%**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앤틱식탁 이태리

앤틱좌탁·거실TV장 이태리

소파 이태리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앤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홍스페이스 SPACE

☎ 062 226 7567